

## 일본 자본주의의 아버지 『시부사와 에이이치』와 기독교 사상 연결점 고찰

이선복 동서대 교수

### 요약본

시부사와 에이이치(渋沢栄一: Shibusawa Eiichi, 1840~1931년)는 일본 자본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실업인으로, 근대일본 경제의 태동과 국가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는 메이지 시기 일본 대장성 스텝의 일원으로 국가의 중요 계획에 관여하였다. 퇴임후에는 제일국립은행 행장으로 부임하고, 9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도쿄증권거래소, 도쿄가스, 대일본인쇄, 닛케이 신문, 도쿄전력, JR동일본, 시미즈건설, 제국호텔 등 500여 기업의 설립과 경영에 종사하였다. 또한 2024년에 변경될 일본지폐 1만엔권 초상화 인물이기도 하다.

시부사와는 크리스천이 아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논어산반일치설(論語山算盤一致說)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듯이 유교에 지식을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만국학생기독교청년회, 구세군, 세계일요학교대회 후원회, 일본일요학교협회, 도쿄기독교여자청년회, 일본기독교연맹 등 기독교 단체와 교류하고 후원에도 기여하였다. 그리고 막스 웨버가 주장한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근간으로 하는 서구식 자본주의를 도입, 일본이 근대국가로 형성되어 가는데 결정적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한다. 또한 당시 미츠비스 등 여러 재벌기업의 출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설립기업의 예에서 보이듯이 공동의 선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기업가로도 사료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기독교인 경영자 10명에 관한 기존 선행연구에 이어, 일본이 근대국가로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기독교와의 관련성을 『시부사와 에이이치(渋沢栄一)』라는 중요 인물을 통해 고찰해 보는데에 있다. 시부사와는 우리나라의 경부선, 경인선 철도가 세워지는데도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역사적 관점의 한일관계가 아닌, 기독교 선교의 관점에서 논리를 접근해 가는 특징이 있다.